

98

여름농활

여성농민반

교양학교

일시: 1998년 6월 24일 (수)

늦은 2시

장소: 제2학관 세미나실

B-106호

주최: 6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98

여름농활

여성농민반

교양학교

일시: 1998년 6월 24일 (수)

늦은 2시

장소 : 제2학관 세미나실

B-106호

주최 : 6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98여성농민반 교양학교

● 차례

인사글 ————— 3

- 여성농민반 교양학교를 준비하며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농민 ————— 4

- 여성농민은 누구인가
- 저항주체로서의 여성농민-여성농민운동

강원도 여성농민회 상황 ————— 9

98 여성농민운동의 현안과제 ————— 10

- 농촌의 교육과 탁아문제

여성농민반 활동은 이렇게 ————— 17

- 부너반? No, 여성농민반! Yes.
- 98여성농민반 활동목표와 방향
- 여성농민반 준비과정과 유의사항
- 여성농민반, 우리는 이렇게 할거다!
- 개사한 노래 배우기
- 이것을 꼭 알려드립니다.

여성농민반 교양학교를 준비하며

98년 여름농활을 준비하면서 강원도에 가서 여성농민회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분들은 전반적인 농민운동의 침체가운데서 여성농민운동을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셨다. 미약한 여성농민의 조직화 상황과 IMF구제금융 이후 점점 더 열악해져만 가는 농촌의 현실속에서 여성농민운동이 넘어야 할 벽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농민은 이중의 억압구조하에 놓여있다. 여성농민은 자본주의 하에서 소외된 농촌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억압을 경험하고, 농촌사회에서는 남성농민과 동등한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계보조적 노동력으로 가치절하 당하며, 가사노동과 양육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는 여성농민들과의 연대의 정으로 98년 여름농활 여성농민반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농민반은 이중의 억압하에 놓여있는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여농학의 실질적 연대의 장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농반의 중요성에 비해 학내의 여농반 조직화 상황은 열악하고, 여농반의 성과물들을 축적시켜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6대 여학생위원회는 여성농민반 교양학교를 개최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양학교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여농반을 여농학연대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해 내는 것과 그 연대의 구체적인 지점들을 모색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확립을 통해 98년 여름농활에서의 여농반이 진정한 여농학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여농학이 함께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98년 여름농활,

관성적인 농활을 벗어나 진정한 여농학 연대의 장으로!!!

- 6대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위원장 양 진

한국사회에서의 여성농민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반쪽만의 농활을 수행해 왔다. '농민학생 연대활동'은 현재 구조적으로 착취당해온 농민들의 현실을 함께 느끼고 고민하는 연대의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대의 대상인 농민에 여성농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단지 농촌 '부녀자'로서, 남성농민들의 보조자일 뿐이지 당당한 농민으로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활 수행 과정에서 한국 자본주의하의 농민으로서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하의 여성으로서 이중의 억압을 겪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해 온 여성농민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성농민과의 연대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농민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농민은 누구인가

·'부녀자'가 아닌 여성농민으로

우리는 여성농민을 흔히 농촌여성 혹은 부녀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여성농민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여성농민을 남성 농민의 보조 노동력 혹은 농가주부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농민은 농업생산 과정의 절반이상을 하고있는 있는 엄연한 생산의 주체이며 이땅의 농민계급의 일원인 것이다.

1) 한국사회 농민으로서의 여성 농민

60-7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는 농업의 희생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농업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저장소로서 다수의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임금을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고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게 묶어둘 필요가 있었으며, 저곡가, 저농산물가 정책은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낮추는 저임금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저농산물가(저농산물가)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생산물의 가치실현을 어렵게 하여 농업의 자본주의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 결과 식량생산의 경제, 상업적 농산

물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의 부문별 불균형, 도농(都農)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농업의 주변화, 농가부채의 격증, 이농의 격화라는 농업의 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IMF 사태' 이후 겨울동안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이 유가의 폭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난방을 꺼 작물을 얼려죽이거나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에 가축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일이 빈발하였다.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농업 투자 지원예산은 삭감되어 영농자금조차 줄어들었다. 농협 및 상환 독촉은 거세졌고 농자재·비료값의 폭등으로 인한 경영 압박에 많은 농가가 부도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이 소비부진으로 인해 생산한 농산물마저 가격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이며, 실직자들의 역이농 현상으로 소작하려는 사람이 늘어 소작료는 오르고 부치던 땅을 언제 때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라는 구조 하에서 여성농민들은 농민으로서의 보편적인 억압을 함께 안고 있다.

2) 생산 주체로서의 여성농민

여성 농민은 농업생산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농민들이 자기집의 일을 하거나 품앗이와 임노동의 형태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92년 현재 가족노동 중 여성의 비율은 45.7%, 품앗이 노동에서의 여성비

율은 64.8%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에서의 여성농민의 생산 기여도는 52%에 이른다. 또한 1992년 현재 농가인구는 244만 명이고 이중 여성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185만 명으로 약 7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은 이유는 현재의 농업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영세한 소농구조에서는 조금이라도 노동력이 있는 농가의 성인남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족농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농업의 상업농화와 환경유기농 지향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농민들이 주로 담당하는 채소나 발작물 등의 상업적 작물이나 유기농업은 대부분이 손이 많이 가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노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또한 노임이 높아 임노동의 사용도 어려우므로 대부분 가족노동력이 총동원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생산노동은 직업으로 범주화되기보다는 많은 부분, 가정주부의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일로 간주되어 왔다. 이로 인해 여성농민은 그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농업생산주체보다는 농업생산의 보조적인 생활의 담당자로서 폄하된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농민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농

업생산비 책정에서 여성농민의 노동을 포함하지 않거나 여성농민의 취업을 단지 부업으로 평가절하하여 쌀 증산을 적용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는 여성농민의 정당한 노동가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3) 여성의 노동

이처럼 여성 농민들은 남성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을 담당하면서도 가사노동, 자녀의 출산·양육과 같은 재생산 노동까지도 전담하고 있다. 이는 농촌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에서 기인하는데, 여성농민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규정함으로써 여성 농민이 생산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여성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의 공간과 가사 및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역할이 혼합된 형태로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농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노동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다. 농사와 가사를 합친 여성농민의 전체 노동시간은 농번기, 농한기 할 것 없이 남성농민들의 농번기 평균 노동시간 11시간 10분과 농한기 노동시간 6시간 5분에 비해 평균 41분-1시간 54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1995년)

4) 여성 농민의 사회적 격차

여성농민이 겪는 이러한 억압은 농촌사회의 가부장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여성농민은 농업 경영과정에서 영농 주체로서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참여도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농사일정, 품종선택, 영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농지구입 등 농업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상당량이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995년 농협법 개정으로 복수조합원제가 도입되어 여성의 참여의 길이 일부 트이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복수조합원의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었으므로 여성의 조합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3. 경영 주체로서의 여성농민-여성농민운동

이렇게 여성농민은 한국자본주의의 왜곡된 산업구조 속에서 수탈 당하는 농민으로서, 그리고 가부장적 구조하의 여성으로서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다. 여성 농민들은 항상 농업 생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생산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영농이나 사회참여에서도 배제된 채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의 노동에 시달려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적 노동력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오랜 억압속에서도 여성농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성을 되찾고 당당한 생산 주체로 서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85년 소값보상 투쟁을 기점으로 단순 동원자 보

조역할자였던 여성농민들은 87,88년 수세 인하, 고추생산비 보장, 의료보험 정취 투쟁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남성농민과 대등한 투쟁 주체로 성장하였다. 그 후 89년 쌀값 보장 투쟁을 통하여 4개 면의 마을 부녀회를 여성농민회로 전화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89년 12월 전국여성농민회를 3년뒤에는 여성농민의 투쟁역량으로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전여농)을 건설해 냈다. 현재 7개 도에 여성 농민 조직이 건설 되어 있고, 2개 도는 아직 미조직 상태이지만 활동가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농민들이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성과 동등한 농업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주체적 실천이 여성 농민운동이다. 즉, 생계가 막막한 농업의 현실,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과중한 이중 노동,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구조, 생활 문화적 박탈감 속에서 분노하고 좌절해 온 여성농민들이 자신들에게 강요되어 온 소극성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회복하여 이중의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성농민의 조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역단위로 여성 농민의 독자적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실천활동을 담보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나가는 것이 그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농민 운동은 전체 사회 변혁운동 속에서 여성농민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초기 여성농민 운동은 수입 개방저지, 추곡 수매가 수매량 정취,

신농정 전면수정 등 많은 부분에서 전체 농민운동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전체 농민운동의 과제 속에서 여성농민의 이해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관철시켜야 하며, 동시에 여성농민 고유의 문제를 전체 운동 진영에서 과제로 삼아 실천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하고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여성농민운동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운동내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복수조합원제 관철'이라는 쟁점 속에서 여성농민 조직에 의하여 '여성농민도 조합원으로'라는 주제가 구호화되고 실천된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며, 농촌타아문제의 경우도 전체 농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 농민 운동이 적극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토지에 대한 여성농민의 공동 소유권과 공동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농민가족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화 촉진하고 협동화를 지원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의 변혁과 농협에서의 할당제 등을 통한 여성 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참여도와 개입력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479

여성 농민들은 자본주의의 농업 수탈과 가부장제

의 여성억압이라는 양대 모순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계층이다. 그러나 여성 농민들은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억압받는 농민들과의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할 농활에서 마저 언제나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한국사회 억압구조의 기저에 놓여있는 투쟁 주체로서의 여성 농민들의 현실에 공감하고 이를 변혁하기 위한 여성농민과의 연대 없이 민중과의 연대, 사회 모순의 변혁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진정한 연대의 관점에서 여성농민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고민하자.



강원도 여성농민회 상황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드는 강원도 여성농민회(이하 강여농)은 평창, 홍천에 존재하는 2개의 회원군과 7개 군에 거주하고 있는 50여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강여농은 여성농민 문제의 본질을 자본주의 하의 농업수탈, 가부장제하의 성차별, 정부의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여성농민정책의 부재라고 바라보고, 98년 하반기의 활동방향으로 식량자급 실현과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98년 여름 농활을 통해서도 여성농민의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의 강여농 활동방향을 여성농민계 현안들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내고자 한다.

• 98년 고대가 농활을 수행하는 각 지역의 여농회 상황을 알아보자.

- 춘천지역 : 강여농 사무국장 한 분이 활동하고 있다. 시북지역은 얼마전부터 농민회 회원의 조직화가 활성화 되었으나, 여농회 회원은 아직 조직화되지 못했다. 6대 여학생위원회는 시북지역 지촌3리에서 농활을 수행하며, 강여농과의 연대를 통해 시북지역의 여성농민을 대상으로한 전체 여농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양구지역 : 여농회 연시국장 한 분이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 여농반은 여농회의 주체적 일꾼을 조직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철원지역 : 세 지역중 조직화 상황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강여농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역 여농반활동은 여성농민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여성농민들의 오임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교육과 탁아문제

1. 들어가며

최근 IMF체제하에서 귀농인구가 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농어촌 인구는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6년만해도 농어촌 인구는 전인구의 26.3%를 차지했으나 96년에는 16.9%로 감소했고 2001년에는 13.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농현상에는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농업이 산업전반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농촌에 적합한 2,3차 산업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 복지정책이 미흡하여 도시에 비해 삶의 조건이 훨씬 열악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99년 시행될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은 위기요인이 작용하여 더욱 이농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민들로 하여금 이농을 더욱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이다. 일부가 학교교육으로 사회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 여성의 몫인양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 깊숙히 뿌리박혀 있다. 따라서 '아이는 역시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성농민들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탁아에서부터 시작해 자녀교육 전반에 신경을 쓰느라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탁아와 교육에 관한 관심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높지만 농촌지역에는 제대로 된 탁아시설이 거의 없어 아동들은 그대로 방치되며, 학교교육 또한 도시지역과 격차가 심하여 대책강구가 시급한 현실이다.

2. 농어촌 교육의 현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농어촌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농촌의 삶의 질저하로 인한 이농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농어촌 학교에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학교가 점차 영세화/소규모화하면서 농촌의 교육조건은 취약해지고 있다. 그 결과 도시에 비해 학습의욕과 학력이 저하되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이는 다시 이농을 택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단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농어촌 교육 정상화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1) 교육인구의 감소와 학교의 영세화

1983년에 200만명이 넘었던 농어촌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1983-1993년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93년 현재에는 92만7천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중학교의 경우도 1983년에 109만명이던 학생수가 1993년 52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기간 도시학교의 학생수가 증가하는 현상과 연관지어 볼 때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어촌 교육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문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학교규모도 영세하게 되어 한 교실에서 2개 학년 이상이 공부하고 있는 복식학급도 상당수이다. 95년 현재 2개 복식학급은 전국적으로 3307학급, 3개 이상 복식학급은 447학급에 달한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기회가 도시학생들에 비해 많으며, 소규모 학교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오히려 정규규모 학교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규모 학교의 복수학급 운영으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고, 교육내용의 분류 및 조직을 정규학교와 같이 할 경우 교육효과가 의문시 되고, 도시학생들에 비해 특별활동 및 과외활동을 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운영할 수 없고, 학생들은 선의의 경쟁체제속에서 학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학습동기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도시에 비해 학력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 교육여건의 미비

교육의 효과를 좌우하는 교육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인적요인과 물적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적요인으로는 우수한 학생과 교사 및 유능한 학교행정가 등을 들 수 있으며, 물적 요인으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과 설비,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등을 들 수 있다.

@ 인적요인

농어촌은 우수한 학생들의 조기 유출로 인해 중등학교 단계부터는 도시-농촌간 학습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띤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의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며, 학습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인적요인으로 교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복식학급의 운영자체도 학습동기의 저하와 같은 문제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어촌의 복식학급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8.5%가 이에 해당하는 관련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김용우 외; 1992) 또한 우수한 교사를 농촌에 확보하기 한 유인책도 미흡하다. 농어촌에 젊고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벽지수당은 86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며, 복식수업 수당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우수교사 유치가 매우 힘들다.

@ 물적요인

농어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노후한 교실과 화장실, 실험실습 시설·설비가 부족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특히 특별 교실이나 과학실 등이 부족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버스 운영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힘들어 하고 있다. 농촌 중학생의 경우 통학시간이 40분이내인 학생이 40.2%, 1시간 이내가 22.2%로 나타나고 있고 한 시간 이상도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중학생의 경우 30.5%가 20분이내라고 답했다; 이화여대 농촌문제 연구소 조사)

3) 학습결손의 문제

농어촌 학교 규모의 영세화에 따른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 미흡, 교육 여건의 열악 및 우수교사의 부족 등은 결국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누적적으로 야기시켜서 도시학생들에 비하여 학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993년에 국립 교육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중등학교·고등학교 모든 단계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도시-농촌간 학력격차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대도시	68.47	68.79	57.75
	농어촌	58.34	62.30	37.72
수학	대도시	79.64	58.69	51.24
	농어촌	67.92	47.94	29.68
영어	대도시	.	56.47	45.30
	농어촌	.	42.34	27.08
과학	대도시	72.00	56.85	37.21
	농어촌	68.94	49.94	28.67

자료: 중앙교육평가원,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1993

이러한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농어촌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자녀들을 도시학교로 조기유학을 보내고자 한다. 그 결과 농촌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서 유학비가 1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2> 교육비의 부담요인(1993)

	납입금	각종 과외비	교재비	유학비	집부금	기타
전국	40.0	49.6	4.9	4.7	0.6	0.1
시지역	38.4	54.9	3.7	2.5	0.5	0.1
군지역	46.5	28.8	9.7	13.7	1.1	0.2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3. 농어촌 탁아의 문제

이상에서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탁아의 문제는 학력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문제와는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점차 취학전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가 언급되고 있고, 실제로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조기 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농촌의 취학전 교육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1) 유치원의 문제

현재 공립유치원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취원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95년 현재 읍·면 지역 아동의 취원률은 30.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도시 지역에 비해 우수한 지도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다. 95년 현재 원장을 제외한 유치원 교사 20,876명 중 전임교사가 984명, 기타 교사가 328명인데 이들 기타교사가 주로 읍·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1995) 그리고 다른 물적 교육 여건면에서도 열악한 시설과 설비, 다양한 놀이시설의 부족, 열악한 화장실 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도시 지역과 달리 농업운영 형태에 따라, 농사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과 탁아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2) 보육의 문제

1995년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보육시설은 225개소를 신·증축하고 복지관, 종교기관·학교 부설의 보육시설을 775개소에서 800개소로 증대시킬 것과 민간 및 직장 보육시설을 각각 800개소에서 1200개소, 426개소에서 446개소로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한정되어 농어촌의 경우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보육교사는 전반적으로 교육의 의미보다는 탁아의 의미가 강하지만 자격요건이 유치원 교사보다 낮음으로써 교사의 질이 문제가 된다. 그나마 보육사업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하여 농어촌의 경우 효율적인 보육정책이 시행되기 어렵다.

4. 앞으로의 과제

농어촌 교육 및 탁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일련의 현상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단계만의 처방이 아닌,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반의 복지정책과 아울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효율적인 농어촌 학교운영 방안의 모색

농어촌 학교의 영세화 및 소규모화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통폐합을 지양해야 하고 다양한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중등 학교를 한 울타리에서 운영하는 방안, 인근의 동급학교와의 통합, 영세 사립 중학교의 공립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교 운영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학교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사용 지침서 및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여 농어촌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교육 조건의 개선

우선 교육을 위한 인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식수업 및 농어촌 교육을 위한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복식수업 수당 및 교재연구 수당의 책정, 복지수당의 현실화, 교사들을 위한 주택자금의 지원, 연수기회의 확대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순회 교사제와 같은 교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의 물적여건과 복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된 학교 건물 등을 보수하여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갖춰줌과 동시에 예체능이나 컴퓨터 실습을 위한 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학의 편의를 위해 농어촌 학교의 통학버스를 전면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학교 복지문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교급식 문제이다. 정부가 97년까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 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문제는 급식의 내용이며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1명의 영양사가 순회하면서 근무하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방안등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리라 판단한다.

3) 농어민의 학비부담완화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감면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영세 농어민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어민 자녀의 도시 유학을 위한 기숙사 및 학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농어촌 탁아 및 취학전 기회의 확대

읍·면 단위에 국공립 탁아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원율을 적어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형적 농어촌, 도시와의 복합형, 준 도시형별로 다양한 유치원 및 탁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수준의 교재와 교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의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농어민 자녀의 우선 입소 추진,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 국고보조의 확대를 통한 보육시설의 확대 및 민간의 보육시설의 육성 유도, 시·군·구 자치단위의 보육행정 조직 및 전담 인력의 강화와 같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과 탁아 현실과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제도적 장치나 행정적 측면에서의 대책마련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교육과 양육에 관련한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육아, 양육, 교육의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닌,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모와 정부가 분업하여 시행하는 올바른 교육제도와 보육제도 속에서만이 우리의 자녀가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여성농민반 활동은 이렇게!

1. 부녀반? No, 여성농민반! Yes

- 여성농민반 활동이란?

농활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농활이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줄임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단순한 봉사활동으로서의 농활이 아니기에 농활의 분반활동은 '농활의 꽃'이라 불리우며 그 해 농활의 성과를 가능하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줄기에서 분반활동은 낮시간의 작업활동을 넘어서 농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학생-농민의 연대의 틀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분반활동내의 '여성농민반 활동'도 이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여성농민반은 89년 이후 기존의 '부녀반'에서 '여성농민반'으로 개칭되었다. 기존의 '부녀반'이라는 명칭에는 여성농민을 단순히 농가의 부녀자나 주부로 규정짓고 부수적으로 농사일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여성농민은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5.7%(1992년 현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경제의 주요 담당자이다. 따라서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의 일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농업경영의 당당한 일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활에서는 '부녀반'이 아닌 '여성농민반'으로서의 이에 상응하는 분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부녀반'이 아닌 '여성농민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농민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여성농민은 남성농민과 함께 농업생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라는 재생산 노동까지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농민은 노동의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의 노동력 수탈의 대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이중의 고통

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과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민은 농가의 주부로만 인식되어 사회적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맞는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농촌사회의 주변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민반은 이러한 여성농민의 열악한 현실 상황을 인지하고 여성농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의 지점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목적 의식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

여성농민반 활동은 현 사회에서 이중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농민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학생-여성농민 연대활동이다. 농업생산의 주체들이 바로 설 때만이 농민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여성농민 운동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농민 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여성농민반의 활동은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제 여성농민반 활동의 의미를 주지하고 여성농민을 억누르고 있는 이중의 착취와 억압을 깨기 위한 활동을 98 여성농민반에서부터 시작하자.

2. 98여성농민반 활동 목표와 방향

① 98여성농민반 활동 목표

현 사회에서 여성농민에게 가해지는 자본과 가부장의 이중억압을 인지하고 이를 여성농민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낸다. 또한 농업생산의 일주체로서 여성농민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활동의 단초를 학생-여성농민 연대를 통해 제시한다.

② 98여성농민반 활동의 구체적 방향

하나, 여성농민반 분반원 뿐만아니라 모든 농활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농민의 현실과 여성농민운동의 현안' 등에 대한 과내 교양

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농민반의 문제의식과 활동내용을 전체 농활대원들과 공유한다.

하나, 여성농민반 활동을 통해 여성농민 스스로 억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농업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하나, 여성농민반 활동을 통해 98년 여성농민운동의 현안(농어촌 교육 문제와 탁아문제 등과 같은 여성농민운동의 현안 등)들을 중심으로 알려내고 그 실천적 방향을 모색한다.

하나, 98년 여성농민반의 실질적 성과를 남기고, 이 성과의 지점들을 평가하고 문서화하여 다음 농활에서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여성농민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한다.

3. 여성농민반 준비과정과 유의사항

① 여성농민반(이하 여농반) 준비는 이렇게 합시다!

--- 농활 가기 전 여농반 준비---

* 전체 농활 대원이 여성농민의 현실과 여성농민운동의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여농반의 문제의식과 활동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농활 이전에 이에 대한 과내 교양을 실시한다.

* 지난 97년 여농반 활동 내용과 성과를 총화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올 98년 여농반 활동의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 특히 비오는 날 실내에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 간다. 비가 오는 날에 여성 농민분들은 집안일을 하시거나 마실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신다. 따라서 비오는 날

을 잘 활용하여 여농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

*여농반 활동 계획을 세울 때, 아동반이나 청소년반, 또는 청장년반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도 있다.

*원활하고 조직적인 여농반 활동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이 조사는 여농반의 구체적 활동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 농활이전의 사전답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정상 사전답사를 통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농활 지역 도착후 호별방문을 통해 가장 먼저 파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농활 수행지역 여성농민에 대한 기본사항	마을 여성농민의 수, 연령분포, 문맹률, 자녀수, 여성농민의 주요노동, 잘 모이는 그룹·장소, 연령별 모임, 마을 여성농민분들의 전체 분위기
부녀회 또는 여성농민회 상황	모임 여부, 횟수, 모임내용, 모이는 연령대, 부녀회(또는 여성농민회) 활동에 적극적인 분들과 파악, 부녀회(또는 여성농민회)에서 영향력 있으신 분 파악
여농반 활동에 대한 사항	이전 여농반 활동 여부, 여농반 활동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 여농반에 대한 여성 농민분들의 요구

---호별방문을 통한 여농반 준비---

*첫 호별방문시에는 여농반 활동 준비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전답사를 통해 위에서 제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첫 호별방문을 통해 조사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여농반 주체가 작업반장이나 농활대장과 동행하여 함께 호별방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활 수행 기간중에는 저녁시간의 호별방문을 통해서 여농반 활동을 알리고 여성농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되도록 저녁시간이나 취침시간을 피해서 방문한다.

---여성농민의 여농반 참여 유도를 위한 활동---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여농반 참여를 위해 마을 방송을 부탁드린다.(가급적이면 부녀회장님께 부탁드린다.)

*여농반 주체는 작업반장과 하루 전날 논의하여 여성 농민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곳으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날 저녁에 진행될 여농반 프로그램을 여농반원 뿐만 아니라 전체 농활 대원들과 사전에(아침) 공유하여 농활 작업시 홍보하도록 한다.

*농활 작업시 여성 농민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특히 새참이나 점심을 준비하실 때는 함께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자.

② 여농반 본 프로그램 진행은 이렇게 합시다!

*여농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시간은 사전답사 자료를 통해 잡는다. 대부분의 여성 농민분들이 식사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식사시간은 피하도록 한다.

*농활대가 기거하는 곳에서 여농반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여성 농민분의 집이나 마을창고 등에서 진행한다. 이 때 여성 농민분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부담이 안 가시도록 사전에 약간의 음식을 준비해 가거나 다른 방식을 취한다.

*많은 프로그램을 한 번에 모두 다루려 하지 말고 약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같이 즐기고 이것을 이야기로 풀어낼 것인지를 고민한다.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하지 말고 여성 농민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모이신 여성 농민분들간의 연령차가 심하거나 문맹인 여성농민이 있을 경우(특히 할머니들) 그분들 주위에 여농반 분반원을 배치하여 프로그램 이해를 돕는다.

•여성 농민분들의 이름을 불러 친밀감을 도모한다.

예) ○○ 어머님---(×),

○○ 언니, 할머니, 이모님---(○)

③ 여농반 활동을 평가합시다!

•하루 일과후 여농반 주체와 분반원 모두가 그날 진행하였던 여농반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일지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일지를 중심으로하여 여농반 주체와 분반원들이 '98농활 여농반 전체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 농민분들과 함께 여농반 활동과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시행하고 여성 농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98농활에서 조사한 ‘농활 수행지역 여성농민에 대한 자료’와 ‘여농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서’는 이후 그 지역에서 여농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줄 뿐만아니라 앞으로의 좀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여농반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98농활에서 조사한 ‘농활 수행지역 여성농민에 대한 자료’와 ‘여농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서’를 반드시 정식으로 문서화하여 남기고 이것이 다음의 여

농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④ 농활 기간동안 이렇게 생활합시다!

•농활 작업 수행시 여성 농민분이 새참이나 점심을 준비하실 때는 농활대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도와드린다. 뿐만아니라 새참이나 점심을 먹은 후의 설거지와 같은 뒷정리도 농활 대원들이 여성 농민분과 함께 한다. 과내 교양(농활 가기전과 농활 기간중)을 통해서 전 농활 대원들이 이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농활 기간중 한 차례 있을 군 여농-학 연추회의에 참석하자. 군 여농-학 연추회는 여성농민회 활동가와 여농반 단대 주체, 각 과 여농반 주체 등이 각 군별(철원, 양구, 춘천 각각)로 모이는 자리이다. 이 회의에서는 각 농활 수행지역의 여성농민의 상황, 여농반 활동 진행 사항, 앞으로 남은 여농반 활동 계획 등을 총화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여농반은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과 여농반 주체와 단대 여농반 주체는 반드시 군 여농-학 연추회의에 참석하자.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농활 기간중에 전달될 예정이다.)



여농반 프로그램

4. 여성농민반 우리는 어떻게 할거다!

• **초청장 만들기** : 여농반 일정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여농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청장을 작성하여 여성 농민분들에게 드린다. 초청장 전달은 여농반 반원들이 각각 조를 짜서 직접 호별 방문하여 나누어 드린다. (사전 답사시 여성 농민분들의 이름을 알아두면 좋겠다.) 초청장 전달은 아동반과 연계하여 아이가 직접 엄마(여성농민)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좋겠다.

• **명찰 만들기** : 여성 농민분들의 이름을 찾아드리는 프로그램이다. 여성 농민분들과 여농반 반원들이 서로의 이름 외우기 게임을 하면서 진행하면 더욱 좋을 듯 하다. 출석부 작성과 함께 진행해도 좋겠다.

• **노래 개사하여 부르기** : 첫 여농반 전체 모임을 가질 때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평소 여성 농민분들에게 익숙한 노래들을 개사하여 함께 부른다. 율동을 함께 한다면 더 좋겠다.

• **비디오 감상 및 토론** : 비가 올 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당하다. 또한 평소에 문화 생활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여성 농민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비디오를 보면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 나간다. (우묵배미의 사랑, 두 여자 이야기, 개갈은 날의 오후 등)

• **못살아 BEST 5** : 농촌의 현안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여성 농민이 겪는 불편함을 중심으로 여성 농민분들 각자에게 '못살아 BEST 5'를 적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를 풀어낸다. '못살아 BEST 5'에 대한 전체 통계를 내어 5위부터 1위까지 맞추어 들어가는 게임을 하면 더욱 재밌다.

• **촌극 만들기** : 여성 농민의 현실이나 건강 등을 다룬 촌극을 만든다. 촌극은 3번 이상의 일정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하며, 마을 잔치때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촌극 주제에 대한 사전 토론→촌극연습→촌극발표)

• **사진 찍기** : 여성 농민분들의 여농반 활동 모습을 독사진 위주로 찍어 전시하거나, 후속 사업으로 활용한다. (편지와 사진 동봉)

• **건강 체조·건강 상식 내용 진행** : 대부분의 여성 농민들은 과도한 육체노동과 잘못된 산후 조리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 따라서 건강 체조와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신다. O/X 퀴즈를 통해 게임을 하면서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 **침묵 스피드 게임** : 여성농민과 여농반원을 골고루 섞어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정해진 시간내에 종이에 적힌 단어를 한 사람이 율동으로 설명하고(절대로 말을 하면 안된다.) 그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다. (더 많은 단어를 맞춘 팀이 이긴다.) 이 때 게임에 쓰이는 단어는 여성 농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련한 단어, 육아·설거지 등과 같은 가사노동에 관련한 단어,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기구·작물 등에 관한 단어를 준비하도록 한다.



5. 개사한 노래 배우기

< 농먼 마음(오동일) >

고추값 채소값이 / 떨어지는 가을밤에 / 그 어디서 들려오나 / 텔레비전 떠드는 소리 /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민가슴에 / 어이해서 너만은 좋다고 지껄이나 / 그 마음 서러우면 / 고추밭에 불태워서 / 농민마음 멀리멀리 띄워보내 주려므나.

< 마음악해서 >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 이젠 맨날 호미질이야 / (아이구 허리아파) / 열쇠도 없는 딸딸이차에 / 이몸실고 밭으로 가네. / (아이고 허리아파) / 생각하면 그 얼마나 힘들었던가 / 애키우고 빨래하고 땅도 파야지 / 농사짓는 여자는 기계랍니까 / 농촌에 사는 여성농민도 / 사람답게 살아봅시다.(여성농민 만만세)

< 한 많은 농촌 농민가(이별의 부산정거장) >

농사지어도 빚도 못갚네 / 앞으로도 갚을 수 없네 /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 즐겁도 하나 없어요 / 한 많은 촌놈살이 설움도 많아 / 그래도 잊지 못할 땅피지기여 / 경상도 농부산이며 / 딸자식이 슬피우네 / 한많은 농촌농민가

< 무어나고 물어신다면(사랑은 눈물의 씨앗) >

1. 농민이 무어나고 물어신다면 /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겠어요 / 이땅에 농민이 없다면 무얼 먹고 살겠소 / 식량이 없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 울테니까요

2. 농촌이 무엇이나고 물어신다면 / 아름다운 전원이라고 말하겠지요 / 그러면 당신이 들어와 농사를 해보라지 / 김매고 농약 치다 모두가 헉헉대며 / 울테니까요

< 진도 아리랑 >

가사 / 율동

①아리 / 무릎치고

②아리 / 손뼉치고

③랑 / 만세 (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



④쓰리 / 무릎

⑤쓰리 / 손뼉

⑥랑 / 손을 얼굴 앞에서 책을 보듯 벌린다.

⑦아라리가 났 /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좌우로 흔든다.

⑧네 / 어깨춤

⑨아리랑 / 한 손을 뺄고 한 손은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⑩웅웅웅 / 뺄은 손을 천천히 들어올린다.

⑪아라리가 / 어깨춤

⑫났 / 손뼉

⑬네 / 만세



6. 이것을 꼭 알려드립니다.

---여성질환을 기공으로 치료한다.---

기공으로 각종 여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여성들이 흔히 겪게 되는 냉증, 생리통에 대한 기공치료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의 냉증에 좋은 기공방법

여성의 골반이 이완되었거나 생식기의 발육부진 및 정신적인 요인이 여성의 냉증을 유발한다.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공 방법은 먼저 바닥에 바로 누운 후, 양발을 15cm 가량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방법을 반복한다. 이어 양쪽 발을 교대로 들어올리며 교차시키기를 여러 번 반복해 들어올릴 때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외음부가 마찰되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이후 양쪽발을 붙이고 서서 한쪽 다리로는 서고 다른 한쪽 다리로는 다리와 발을 굽히는 동작을 한다. 동시에 다른 쪽 발의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 항문을 수축하는 운동을 30회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바로 누워 양손을 힘껏 주먹 쥐고 동시에 항문에 힘을 주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완시키며 숨을 내쉰다. 이런 방법은 모두 여성의 내분비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골반의 혈액을 소통시키고 질의 수축력을 강화시켜 여성의 불감증에도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 여성의 생리통을 없애는 기공방법

여성의 생리통에는 안마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생리통이 있는 여성은 생리 며칠 전 스스로 하는 약간의 안마를 통해 90%이상 통증을 억제할 수 있다. 안마방법은 양다리를 어깨와 나란히 한 후 서서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으로 힘을 다하여 발끝을 잡는다. 다시

똑바로 서서 상체를 뒤로 펴고 양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린 후 바로 선다. 이 동작은 약 20분간 계속한다. 다시 바닥에 누워 양손바닥을 서로 문질러 열이 생기게 한 후, 손바닥을 아랫배에 대고 빙글빙글 돌리며 마사지하고 이어 반대로 36회 실시한다.

---요통에 대한 치료법---

•요통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20%나 높게 발생하며, 40세 이상의 농민 가운데 절반이 요통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요통은 현재 농촌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흔한 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농민에게 많이 발생하는 요통은 모내기, 풀베기, 야채수확 등을 할 때의 엉거주춤하거나 허리를 굽혀 엎드리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엎드린 자세를 오래 지속하고 있으면 허리의 근육이 늘어나고 계속 그 자세를 취하게 되어 근육이 쉴 수 없게 된다. 또 근육이 움직일 때 나오는 노폐물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 그 자극으로 인해 근육에 강한 경련이 일어나 통증이 생기게 된다. 특히 극한기의 농업 노동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쉽게 피로하게 하여 요통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러한 요통을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한 증상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1) 엎드린 자세로 작업을 할 때에는 가능한 쭉그려 앉든지 한 손을 짚도록 한다.
- 2)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 3) 근육을 충분히 신축시키기 위해 작업중 때때로 몸을 편다.
- 4) 허리를 굽히지 않게 하도록 효율적인 옷을 입는다.
- 5)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는 다리를 굽혀 몸에 가깝게 드는 습관을 기른다.
- 6) 몸을 갑자기 틀거나 뒤로 젖히지 않는다.
- 7) 뜨거운 찜질을 하여 하루 동안 허리에 과중된 피로를 풀어준다.
- 8) 요통체조를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 요통 및 디스크의 운동요법

1 바로 누워서 무릎 펴고 발목을 상·하로 들었다 내린다 (7회)	2 바로 누워서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 발가락이 서로 맞닿도록 안쪽으로 발목을 돌렸다 바깥쪽으로 툰다 (7회)	3 바로 누워서 양쪽 무릎을 펴고 한쪽 다리를 약간 들어서 밖으로 45° 정도 벌렸다 오므린다 (좌·우 7회)	4 바로 누워서 무릎 펴고 한쪽 다리를 90° 까지 올렸다 내린다 (좌·우 7회)
5 바로 누워서 무릎 펴고 상체를 약간 일으켰다 내린다 (7회)	6 바로 누워서 두 팔로 한쪽 무릎을 안고 가슴까지 끌어 당겼다 툰다 (좌·우 7회)	7 바로 누워서 두 손으로 양쪽 무릎을 안고 가슴까지 당겼다 툰다 (7회)	8 바로 누워서 양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었다 내린다 (7회)
9 엎드려서 양 무릎을 펴고 한쪽 발을 올렸다 내린다 (좌·우 7회)	10 엎드려서 상체를 위로 젖혔다 내린다 (7회)	11 그림과 같은 자세에서 호흡에 맞춰 허리를 고양이 등처럼 둥글게 굽혔다 내린다 (7회)	12 양쪽 팔꿈치를 펴고 양쪽 무릎은 바닥에 닿은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밀었다가 양팔을 발 뒷꿈치에 닿도록 뒤로 뻗는다 (20회)
13 양무릎 펴고 바로 앉아서 허리를 굽혀 두 손이 발끝에 닿도록 한다 (10회)	14 직각이 되는 의자에 앉아 양 손끝이 바닥에 닿도록 허리를 굽혔다 툰다 (20회)	15 바로 선 자세에서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굽혔다 툰다 (10회)	

---손바닥 자극 민간요법---

*손바닥 비비기

잠자기 전에 손바닥을 서로 비벼 주면 숙면할 수 있고, 다음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양 손바닥을 강하게 비벼 주면 얼마 안 있어 손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붉은빛이 돈다. 이는 손바닥의 혈관이 혈액 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잠자기 전에 1~2분 정도 이불위에 누워 실시한다.

*손바닥 치기

아침에 이불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면 머리와 몸을 강화시킨다. 손바닥 한가운데는 심장의 작용을 도와 뇌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의 자극이 활성화되어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졸음을 쫓아내는 작용을 한다. 아침에 이불에서 눈을 뜨자마자 양손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손바닥끼리 세게 3번 정도 쳐준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으로 곧게 뻗은 다음 세게 3번 정도 쳐준다. 팔이 구부러지면 안되고 손바닥은 꼭 맞게 쳐야 한다.

*손바닥 리듬체조

손가락 끝을 자극시키면 뇌와 내장을 단련시키고 노화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엄지손가락 끝으로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 끝을 자극시켜 주는 것이다. 자극시켜 주는 순서는 둘째손가락부터 하면 된다. 먼저 둘째손가락을 두 번 누르고, 가운데손가락은 한 번, 넷째손가락은 세 번, 새끼손가락은 네 번, 역으로 넷째손가락에 세 번, 가운데손가락에 한 번, 둘째손가락에 두 번 정도 눌러 주면 된다. 전부 16번으로 2,1,3,4,3,1,2 라고 하는 리듬에 맞추어서 해주면 재미도 있다.

•어깨결림

어깨 결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자극법으로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사이에는 합곡이. 또는 손등에 있는 것으로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 사이에 경정저미 존재하는 데, 이 합곡과 경정점을 자극하면 어깨 결림을 대개 치료할 수 있다.

•이쑤시개로 자극하는 방법

체력이 향상되는 방법이다. 이쑤시개 10개정도 묶어 이것으로 손바닥을 자극하면 이쑤시개의 날카로운 부분이 손의 혈관을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가볍게 손바닥이나 손등 전체를 3초 동안 눌러 주었다가 떼고 하는 방법을 반복한다.

여성 농민가

참 세상 농민 세상 일구 어가 는
세상이 우리 더러 뭐라 고 해 도

우 리 는 땅 의 사람 당당한 여성 이 다
우 리 는 땅 의 사람 시작 이고 끝 이 다

까만얼굴 짙은 머리 굵은 손 마 디 여
자식 치고 곡식 치는 땅 의 어머 니 저

센 가슴에 해 방 을 심는 세상의 어머니 다 흐
억센 땅에 씨를 뿌리는 세상의 젃꾼이 다 리

가슴열고 일 어서는 여성 농민 농민이다

농민가



불검한 우운물 노강도 물물물 한물 해날 에-퍼- 저 펄박 의- - 설움
에-잠- 겨 억눌 림-의 설움
평도울었 다 가림 주 구의 설움



이 밤	쳐	보국 영민	기 치가	높 이 솟 았	다	한
이 밤	쳐	혁 양 혁 왜	기 치가	높 이 솟 았	다	개
이 밤	쳐	제 품 구 민	기 치가	높 이 솟 았	다	성 두



물	—	복	을	리	며	—	홍	물	—	우	팔	—	독	엔
벽	—	고	을	리	며	—	주	린	—	배	를	—	음	켜
소	리드	을	리	이	며	—	초	근	피	죽	한	사	발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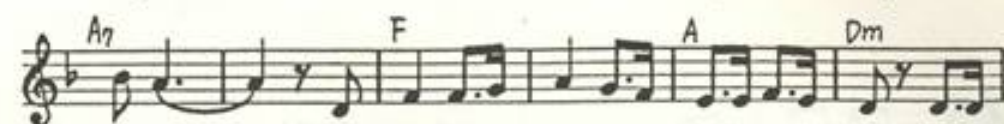
불거	핀	즐	황토	별	판에	모	여	선	그	날
답	고	서	죽	들	고	일	어	선	그	날
물	을	다	갈	마	귀	물	부	던	그	날



유도불도	누천년에	운이 다했 다	농민	들의	흐느낌이 다	— 저
태평-곡	격강가들	불-것이 다	농민	들의	아우성이 다	— 저
춘삼-월	호수철을	불-것이 다	농민	들의	불망기이 다	—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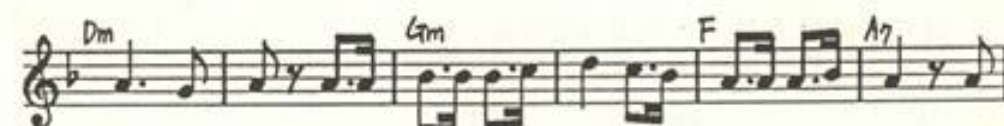
최상위엔 대나무 숲을 이루고 봉황 대엔 닭이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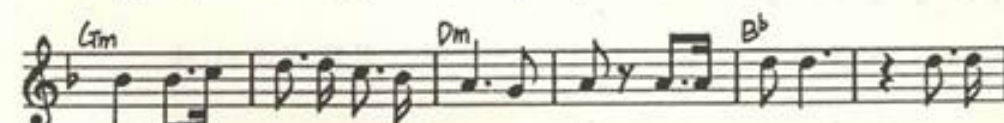
로향 불 불을 내뿜 비로써 새해 복을



현의 햇불이 타다 하늘 아래 들 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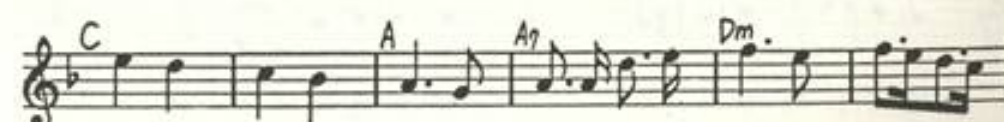
산 위 에 가든 마다 타는 봄 노는 무엇이었 나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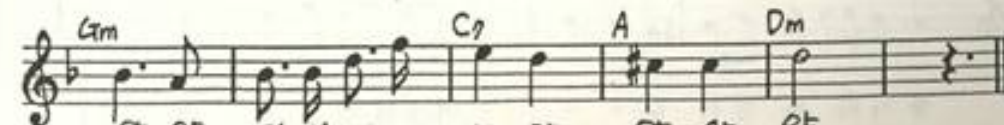
오 년의 핏발어린 외침은 우리 동학 농민



피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OF OF OF OF OF- OF- OF OF OF-OF-



OF OF OF OF OF OF OF OF OF OF OF

딸들이 일어나라

김호철 글·곡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열어붙은 땅 녹아 새싹이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케케묵은 낡은 틀 - 싹뚝 잘라버리고 딸들이 일어나라 깨어라 이 땅
더 이상 - 비랑끝에 흔들릴 수는 없다 딸들이 일어나라 깨어라 이 땅



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사랑도 행-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 해
고귀한 모성보호 다 빼앗겨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 해



나가자 깨부수자 성차별 노동착취



뭉치자 투쟁이 다 - - 여성해방노동해방